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이경이 아가타 (1814-1840)



동정 순교자 이경이는 태종 교우로 태어났다. 그는 혼기에 이르러 어느 내시에게 속아 혼인하였으나 곧 집으로 돌아왔고, 범 라우렌시오 주교는 그의 혼인을 무효화해 주었다. 이후, 아버지를 여의고 생계가 막연해지자, 어머니를 시골에 사는 외삼촌에게 부탁하고 상경하여 한영이(韓榮伊), 권진이(權珍伊) 모녀의 집에 살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기해박해가 한창이던 1839년 7월 17일, 이경이는 한영이, 권진이 모녀와 함께 체포되었다. 그런데 밀고자 김순성의 간교로 한영이만 포청에 갇히고, 이경이와 권진은 사관청(仕官廳)에 갇히게 되었다. 사관청에서 한 포졸이 권진이를 납치하려 하자, 이경이는 권진이와 함께 탈출하였는데, 곧 체포되고 말았다. 마침내 1840년 1월 31일, 그는 5명의 교우와 함께 당고개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27세였다.

성화_김명례 作,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주님 승천 대축일 • 홍보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사도 1,11 참조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주님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1-11

화답송

시편 47(46),2-3,6-7,8-9(◎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또는 ◎ 알렐루야.)

○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세상의 위대하신 임금이시다. ◎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노래하여라, 하느님께 노래하여라. 노래하여라, 우리 임금님께 노래하여라. ◎

○ 하느님이 온 누리의 임금이니, 찬미의 노래 불러 드려라. 하느님이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하느님이 거룩한 어좌에 앉으신다. ◎

제2독서

에페 1,17-23 <또는 4,1-13,11-13>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복음

마르 16,15-20L

영성체송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엘리사



엘리사의 샘



예리코 전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곁으로 간 사람은 둘입니다. 창세 5,24에 나오는 에녹과 2열왕 2,1-18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이 가운데 엘리야는 자신의 예언직을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승천합니다. 당시 전문 예언자들이 많았는데도 하느님께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예언자도 아니었던 엘리사를 택하셨습니다. 그 시대의 예언 소명은 최고 권력자와의 대립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웬만한 사람은 맡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를 견딜 만한 근성과 결단력을 지닌 사나이였습니다. 엘리야는 승천 전에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며 엘리사에게 몇 번이나 말하지만(2열왕 2,2.4.6), 엘리사는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베텔에서 예리코로, 또 요르단강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흔들림 없이 예언자의 길을 갈 거란 점을 증명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소망한 것도 부나 영예가 아닌 ‘엘리야가 가진 영의 두 뿔’이었습니다(9-10절). 결국 엘리사는 스승의 승천도 목격하고 원하는 바도 얻게 됩니다. 엘리야의 승천 이후 동료 예언자들은 엘리사에게 스승의 영이 내린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15절).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느님의 사람이 된 엘리사는 예리코에서 첫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리코 샘의 수질이 나빠 생산력이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불평하자, 엘리사는 소금을 뿌려 물을 좋게 만듭니다(18절). 다만 그 뒤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화가 이어지는데요, 베텔로 가던 길에 어린 아이들이 따라와 그를 대머리라고 놀려 대자, 엘리사는 애들 장난이라고 웃어 넘기지 않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암곰 두 마리가 나타나 아이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언뜻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이 일화에는 사실 행간에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이야기 속의 아이들은 엘리사가 예언자임을 알아본 듯합니다. 당시의 예언자들은 복장에서 표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아이들”로 나오지만, 히브리어 [나아르]는 청소년부터 청년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일화 속의 아이들은 나이 적은 어린이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대머리야, 올라가라!”(23절) 한 것은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한 말로 보입니다. 곧 ‘네 스승인 엘리야가 승천했는데 너도 한 번 올라가 보시지.’ 하고 비아냥댄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순 거짓말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었던 거죠.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한 건 하느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 일화를 예리코 기적 사건과 나란히 배치하여 하느님은 생명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임을(신명 32,39; 1사무 2,6 등),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분의 대리인 역할을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하게 될 거란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오늘, 생명을 주기도 거두기도 하시는 창조주의 섭리를 떠올리며 구약 시대에 ‘하늘로 오른’ 엘리야와 그 뒤를 이어 예언자의 삶을 산 엘리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 (사회적 약자) ⑦ - 인간관계와 사마리아인의 비유, 경계 없는 이웃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 사이의 갈등들을 해결하고 서로 돌보는 문화를 창조하는”(57항) 길을 찾고자 합니다. 지난주 ‘새로 시작하기’(77-79항)에 이어, 오늘은 ‘경계 없는 이웃들’(80-83항)을 소개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서는 누가 우리 이웃인지를 선불리 결정하지 말고, 대신 우리 자신이 모두에게 이웃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라는 물음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집단에 속하진 그렇지 않진 관계없이’ ‘모든 차이를 제쳐놓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모든 편견과 모든 문화·역사적 울타리와 모든 하찮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이웃에게(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둘째, 당대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예수님의 요구는 오늘날 우리를 대단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당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인은 ‘불결한 이, 혐오스러운 이, 위험한 이’로 여겨졌는데, 비유에서는 그러한 사마리아인이 상처 입은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회칙은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마주한 ‘자비의 만남’(요한 4.1-30 참조)이 어떠한 이념적 조작의 여

지도 남겨놓지 않고, 그 만남의 영역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셋째, 회칙의 “제1장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의 내용을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은 ‘왜곡된 인간관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장 길 위의 낯선 이”는 성경을 바탕으로 지금의 세계를 치유할 참된 인간관계, 특히 만남의 사회적·보편적 차원을 성찰하고 제안합니다. 기억을 되살리면, 교회는 당면한 사회 현안에 대하여 ① 성경과 전승의 가르침(신앙)을 통해 ② 철학과 (사회·자연)과학, 각각의 방법론(이성), ③ 경험(지혜)을 모아 그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섬으로써 복음화 사명을 수행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험과 관련하여, 일본제국주의의 35년 강점과 한국전쟁뿐 아니라 이후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까지의 역사적 흐름은 오늘날 ‘편견, 문화·역사적 울타리, 하찮은 이해관계, 이념적 조작’을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들을 해결하여 서로 돌보는 문화를 창조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마다 새로운 세대는 그 시야를 더 높은 곳에 두면서 과거 세대들이 투쟁한 바들과 성취한 바들을 짚어줘야 합니다. 사랑, 정의, 연대와 함께 선성(善性)은 단번에 달성되지 않습니다”(11항). ☸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마태 26,42)

경추 골절로 인한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를 시작한 60대 남성 환자를 위한 방문이었다. 웬만한 청년보다 더 건강해 보이는 환자는 신뢰감을 주는 중저음의 목소리로 지난 몇 주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환자는 그동안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노후대책도 착실하게 준비해 두었기에 작년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는 게 청년 시절부터 품었던 꿈이었기에, 은퇴와 동시에 값비싼 고급 자전거부터 사서 거실에 모셔두었고, 그 앞에서 지도를 펼치고 여행 계획을 짜다 보면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고 했다.

사고가 난 그날도 환자는 기초체력을 다질 겸 새 자전거랑도 친해질 겸 한강 자전거길에 나섰다. 환자는 저 멀리까지 사람이 없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서 조금 더 속도를 내려고 페달을 세게 밟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나 자전거길로 뛰어드는 것이 아닌가? 놀랄 틈도 없이 반사적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자 환자는 처박히듯 바닥에 떨어져 정신을 잃었는데, 그 순간에도 아이와 부딪히지 않아 다행이라고 안심했다고 한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으나, 환자는 하필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면서 목이 꺾여 목 아래로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며칠 전에는 저도 모르게 입에 올리기 죄스러운 생각이 떠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글썽 ‘차라리 그 아이를 치어버렸다면 어땠을까?’ 하고 있더라고요. 천벌을 받을 일이지요.” 나는 환자의 처지가 너무 딱해

서 조금이나마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다. “얼마나 힘들고 속상하시면 그런 생각이 다 드셨겠어요? 그래도 환자분은 그때 그 자리에서 자신보다 그 아이를 지켰던 분이세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던 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맞아요, 신부님.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다 제 잘못된 걸 제가 자꾸 잊어버리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한테 무슨 죄가 있었어요? 그저 아이 다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드려야...” 가만히 듣고 있던 나에게 환자가 울먹이며 기도를 부탁했다.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 저는 자꾸 하느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런 마음을 먹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너무 마음이 저려와 환자의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당신께서 마셔야만 했던 잔이 비켜 가기를 바라셨던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환자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 23,34) 하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환자와 함께 그 철부지 어린아이를 용서해 주고 계셨다. “신부님, 그래도 제가 잘한 거겠죠?” 병실을 나서려던 나를 향해 한 번 더 묻는 환자에게 나는 말없이 안수하고 나서 말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도, 오늘 저에게 환자분은 예수님을 꼭 닮은 분이셨습니다.” ☺



교구 소식

중등부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5/19(주일) 10시~12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성당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부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트럼펫, 타악기

일시 5/19(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자유곡)

문의 010-8419-0073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일시 5/25(토) 16시~18시

장소 파주 엑소더스 (파주시 조리읍 송비말길 79-39)

주제 연대성의 원리 (각론) 4.16 참사에 대한 사회교리적 접근 - 이종원 신부

신청 및 문의 031-948-8105 (금, 토 휴무) / 1회 참석도 가능

2024 청년 DMZ 평화의 길

날짜 6/29(토)~30(주일) [1박 2일]

장소 파주-연천 (JSA성당 방문 포함)

회비 6만원 (선착순 80명)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전시] 각양각색展_캘리그래피·전각 / 강민경(5/11~16) + 문선미(5/17~24) 2인전

일시 5/11(토)~24(금) 10:30~17:30 (매주 월요일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문의 031-877-9153, 카카오톡 @g_pyeongwha

생태영성학교 - 기본과정 1기

일시 5/22~6/26, 매주(수) 19:30

장소 신앙교육원 (의정부시 신흥로 261)

주제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이해

준비물 회칙 「찬미받으소서」, 개인컵

접수 5/19(주일)까지 [회비 6만원]

문의 031-850-1492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월간성서 <5월호>

하느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창세 5,6~8)

강사 김병진 신부 (부산교구,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 비블리곰 성서학)

일정 5/9(목), 16(목), 23(목) [총3회 업로드]

시청 ▶



제6회 의정부ME 가족모임

"보라,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시편 133,1)

일시 5/18(토) 09:30~16:30

장소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195)

전신자 성경 읽기 5/12(주일)~18(토) : 루카 11,14-36



5/25(토) 해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담화] 홍보 주일

홍보 주일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일시: 5/15(수) 09시~17:30
 장소: 남양주체육문화센터(남양주시 다산지금로 91)
 미사: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강사: 이재화 안셀모 신부, 김경진 베드로 신부
 회비: 5,000원 (티켓 구입)
 문의: 010-2127-0032, 010-9697-9004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일 기도회

일시: 5/17(금) 21시~12: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강사: 김대호 토마스아퀴나스 신부 (아우구스티노회)
 문의: 010-2127-0032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및 교육

예수마음기도: 6/25~29 [4박5일]
 예수마음기도: 6/25~7/3 [8박9일]
 이나시오영신수련: 6/25~7/3 [8박9일]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교구순례@성베네딕도왜관(신축)수도원 전례

6/15(토)~18(화), 8/24(토)~27(화) 수도원~대구17
 7/13(토)~16(화) 수도원~부산8~마산6
 10/12(토)~16(수) 울릉도, 독도~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성당 후문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낙태 후 화해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일시: 5/17(금)~19(주일), 6/7(금)~9(주일)
 회비없음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영성의 책꽂이 - 서강대학교

일시: 5/20(월) 14시~16시 (강의와 미사)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소강당 (무료)
 주제: <단테 신곡과 신망애>
 강사: 김산춘 신부 (예수회)
 문의: 02-705-4711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영신수련 침묵피정: 5/24(금)~26(주일)
 엄마와 딸(미혼)피정: 7/6(토)~7(주일)
 영신수련 8일피정: 8/1(목)~10(토)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운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제22회 젊은이 전국 연합 성령축제

성령 강림 대축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가톨릭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5/19(주일) 10시~17시
 장소: DMZ 생태관광지원센터(파주시 임진각)
 회비: 1만원 (식사 포함)
 문의: 010-9574-6469 의정부성령새신 청년회장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6/8(토)~9(일), 8/24(토)~25(일)
 3박 4일: 6/27(목)~30(일)
 4박 5일: 5/27(월)~31(금)
 8박 9일: 6/13(목)~21(금), 7/4(목)~12(금)
 40일: 10/4(금)~11/12(화)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세미나

일시: 6/15(토) 11시 ~ 16(주일) 16시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
 내용: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회비: 8만원
 문의: 010-5490-5345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6/7, 매월 첫(금) 10시~15:30
 은인피정 및 성모성월 기념미사:
 5/18(토) 10시~17시
 대침묵피정: 6/21(금)~23(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일)
 문의: 02-990-1004 서울명상의집

평화 학교

1차: 5/18(토) 15시 ~ 19(주일) 13시
 2차: 6/22(토) 15시 ~ 23(주일) 13시
 3차: 7/20(토) 15시 ~ 21(주일) 13시
 4차: 8/24(토) 15시 ~ 25(주일) 13시
 장소: 왜관수도원 내 피정의 집
 회비: 8만원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10-6791-0071(문자)

수도 생활 체험 피정

일시: 5/25(토)~26(주일), 19시부터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본원)
 회비: 3만원
 문의: 010-9816-0072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6/21(금)~23(주일)
 추자도포함: 5/26(주일)~29(수)
 제주성지순례: 7/1(월)~3(수)
 우도해변포함: 7/20(토)~22(월)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 - 원주교구

6/14(금)~16(주일) 강한수 신부 (의정부교구)
 7/19(금)~21(주일) 안소근 수녀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8/16(금)~18(주일) 조규만 주교 (원주교구)
 9/20(금)~22(주일) 남궁민 신부 (원주교구)
 문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장소: 명동가톨릭회관7층 / 담당사제: 김종국 신부
 강사: 정병덕 라파엘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영선반 직원 채용

부서: 고객지원팀 영선반(실내외 작업)
 근무: 주5일 근무 (주40시간 08:30~17:30)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길음동 성당 묘원(올대리) 직원 모집

분야: 묘지 산역 및 현장작업자 1명 (계약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 길음동 성당(성북구 길음로9길 74)
 또는 hope9237@seoul.catholic.kr
 문의: 02-912-4612

재속 맨발 가르멜회 십자가의 성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건진성사 받은 자
 첫모임: 6/10(월) / 문의: 010-9836-8998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과목: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
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 악기·국악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성악·플루트·현악·목관·
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장소: 최양업홀(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접수: 5/24(금)까지
과정: 3개월 수업 (6월~8월)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co.kr>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후기(주간)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
접수: 5/27(월)~6/7(금), 전형일: 6/22(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생활복지사 모집

근무형태: 전일제 1명 (정규직)
근무지: 파주시 광탄면 심곡로 42
모집: 5/31까지 (서류접수 후 면접)
근무일: 7/1부터 학습지도 전담으로 유경험자
문의: 031-947-9047
※ 자세한 사항은 caritasdaegun.or.kr 참조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모집

모집: 사제식당 조리원 (계약직)
문의: 02-740-9707~8
※ 자세한 사항은 songsin.catholic.ac.kr 참조

안내 · 기타 ▶▶

2024 서강대학교 가톨릭 전례꽃꽂이 졸업작품전

일시: 5/29(수)~30(목)
장소: 대방동 성당(영등포구 가마산로89길 7)
문의: 010-5201-3271 이정자 교수
02-847-1784 대방동 성당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예수회후원회 성지순례

6/7(금)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6/27(목)~7/6(토) 동부지중해크루즈 성지순례 (549만원)
7/12(금)~23(월)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460만원)
8/26(월)~9/6(금) 튀르키예, 그리스 (485만원)
9/2(월)~9/13(금) 발틱3국, 폴란드 (49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연합 성가 발표회

호평동 세실리아 성가대 및 가톨릭 다운 합창단
모든 이와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
성가, 가곡, 팝, 포크송, 트로트 등
일시: 5/24(금) 19:30 / 호평동 성당 (무료 입장)
문의: 010-7740-966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 입양 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라파엘 가을특선 성지순례안내

9/11(수) 추석 특선 출발 (10일간)
알프스와 중세 수도원 (545만원)
이탈리아 (535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535만원)
9/16(월), 10/6(주일), 10/20(주일) 출발
튀르키예, 그리스 (409만원)→동반자 100만원 할인
10/21(월) 나가사키 (139만원)
10/13(주일) 성모님 발현지 (485만원)
10/22(화) 이탈리아 (520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9/16(월) 튀르키예, 그리스 (10일, 409만원)
(동반자 100만원 할인)
9/23(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2일, 585만원)
9/24(화)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동반자 50만원 할인)
10/8(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85만원)
10/21(월) 산티아고 107km 도보 순례 (12일, 475만원)
12/2(월) 미서부,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13일, 760만원)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출발: 9/19(목) / 비용: 599만원 (+2,000유로)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성 소 모 입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살레시오회	매월 넷째 토요일 14시	대림동 수도원	010-6221-3520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26(주일) 09시	서울 분원 (서울 장충동)	010-8353-2323 (문자 문의)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5/18(토) 14시	개화동 수도원 (서울)	010-3800-1579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5/18(토) 15시	성북동 수도원 (선잠로9-6)	010-8573-0567
	한국외방선교회	6/2(주일) 11시 / 한반도에 머물긴 아까운 교회의 인재		010-8715-2846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홍보 주일

부활 시기의 일곱 번째 주일인 주님 승천 대축일은 홍보 주일이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홍보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요. 이런 변화에 따라, 성 바오로 6세 교황(1963-1978)은 복음 선포를 위한 대중 매체의 중요성을 신자들에게 알리고자 1967년 “세계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날은 매해 주님 승천 대축일에 지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홍보 주일”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가톨릭교회는 진리와 정의를 전하는 수단으로 대중 매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천주교회는 1980년부터 ‘출판물 보급 주일’을 홍보 주일과 통합하여 신자들에게 교회 매체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홍보 주일을 맞아 특별히 교계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도서를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날은 올바른 대중문화의 발전과 홍보 매체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미사」의 오늘 보편지향기도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홍보 매체에서 일하며 주님과 주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현대의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며 공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홍보 주일 첫해에 발표한 담화에서, 현대 문명의 특징이라고 할 신문,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대중 매체의 놀라운 발전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의 힘에 대한 신자들의 각성 및 언론인을 비롯한 대중 매체 종사자들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회 매체에 관한 교령 「놀라운 기술」(1963.12.4)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새로운 기술이던 사회 매체에 대한 언급은 현시대에 응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홍보 주일”(18항)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에 따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이듬해인 1967년에 홍보 주일의 제정과 첫 번째 담화가 발표된 것입니다.

제1회 홍보 주일 담화에서는 사회 대중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대중 매체의 폐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였습니다. 해마다 사회 매체의 기술과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시대 상황에 따른 과제도 새롭게 대두됩니다. 올해 발표된 제58차 홍보 주일 담화에서는 ‘인공 지능’의 활용과 유의사항이 주요 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인공 지능은 여러 측면에서 인류에게 긍정적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적대적 지배의 수단’이 되거나 “인지적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간의 마음에서” 출발하여 영적 관점과 참된 지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대중문화의 올바른 발전과 복음화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보 주일을 맞아 이 시간에도 사회 매체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홍보 분야의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